

협회 회장단 행사 연이어 개최



우리 협회 회장단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주한일본특파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2월 21일(수)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삼한기업 회장),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등 회장단 4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하라다 마사타카(原田 正隆) 대표간사(서일본신문 지국장) 등 특파원 14명이 참석하여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석래 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가 마음을 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한일 양국 언론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회장단은 12월 10일(토)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을 위해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하여 송추C.C에서 친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 회장),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등 회장단 10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 야마모토 에이치(山本 栄二) 경제공사, 미야지마 아키오(宮島 昭夫) 공사 등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세토 유조(瀬戸 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 방한

한일우정의 해 2005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화)에 방한한 세토 유조(瀬戸 雄三)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조석래(趙錫來) 회장,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강신호(姜信浩) 고문(전경련 회장), 김재철(金在哲) 고문(무역협회 회장)을 예방하고 귀국하였습니다.

◆ Column ◆

“야스꾸니 신사 참배와 노르아드레날린”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허 남 정



일소일소 일로일로(一笑一少 一怒一老). 웃으면 <뇌내 모르핀>이 분비되어 우리 신체기관을 건강하게 만들며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사실을 하루야마 시게오(春山 茂雄)는 베스트셀러 <腦內革命>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한편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강한 독성의 호르몬이 분비되며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 물질은 자연계에서 뱀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했다.

우리 한국인은 쉽게 화를 낸다.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금방 구별이 된다. 일본인의 표정이 대체로 부드러운데 비해 한국인은 약간 화를 낸 듯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화가 나도 좀처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세 번까지는 잘 참다가 네 번째는 아무 말 없이 칼로 상대를 찔러버린다는 얘기가 있다.

지난 10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찌로 일본 총리는 취임이후 5번째의 야스꾸니 신사참배를 단행함으로써 그럴지 않아도 살얼음을 딛는 분위기의 한일관계를 끙끙 앓아볼게 했다. <전쟁에 본의 아니게 내몰린 영령들을 애도하는 게 무엇이 나쁘냐?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러간다>는 그의 반문에 우리는 그저 어안이 병병하고 화가 치민다.

그러나 합사(合祀)된 야스꾸니 신사의 A급전범들은 무고한 일본 국민들을 전쟁에 내몰고 주변 아시아인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던 주역들로서 전쟁의 피해자나 희생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억지 변명으로 돌리며 전쟁의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韓·中과 일본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금년 7월 실시된 중국의 한 여론조사를 보면 <고이즈미 총리나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꾸니 신사 참배>에 대해 중국 국민들은 97.9%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짐작된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들의 일본과 한중관계에 얽힌 근세사에 대한 지식의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즘 명동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윤사마>라고 소리를 지르면 5명중 4명이 고개를 돌리는데 그들은 모두 일본여성들이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근자에 일본여성들의 한국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요즘 일본에 출장 가서 낯선 일본 여인들을 보면 필자는 <나는 한국의 윤사마입니다>라며 말을 건넨다. 그러면 그녀들은 금방 함박웃음을 터뜨리며 <한국에 돌아가시면 윤사마께 꼭 안부를 전해주세요>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25년간 일본을 왕래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특히 많은 일본여성들은 한국과 한국음식을 좋아하며 일본 남성들이 노골적으로 질투를 표현할 정도로 한국남성에게 빠져있다.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인을 만나면 몇 마디라도 한국어를 쓰려고 하고 한국 드라마를 소재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며 처음 보는 한국남자와 사진을 같이 찍자고 덤벼(?)들 정도로 용감하다.

양국간의 정치적인 냉기류에도 불구하고 한일 민간교류는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류>에 힘입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가히 <政冷民溫>의 시대다. 한일우정의 해를 맞은 금년에는 수백회의 각종 문화행사가 열렸다. 40년전 양국을 다녀간 사람은 연간 1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1만 명이 다녀가고 있으며 교역규모도 100배 이상 확대되었다.

양국의 정치적인 갈등은 오래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오히려 불신과 오해만 키울 뿐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한류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국민 설득문제도 있어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다. <야스쿠니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켜 이 문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상호조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선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서 그간 3국 정상이 미루어두었던 정상회담도 재개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양국 재계의 지도자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일 양국간에는 과거사청산 못지않게 북한핵문제 해결, 한일FTA 체결은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이르기까지 함께 협의하고 성취해야할 미래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리고 양국의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왜곡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현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기여할 한일FTA 체결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양국이 하루속히 <政溫民溫>의 상태를 회복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을 향하여 <나가자 미래로 다 같이 세계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꿈을 꾀다. 우리가 꿈꾸어왔던 <위대한 동아시아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FTA시대의 과제로서 “원산지 규칙과 기업”에 대해 논의

~ 제7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

무역·기계·산업일반분야에서의 양국 경제인간의 인식의 공유와 합의를 지향하는 「제7회 한일산업무역회의」가 11. 21(월)~23(수)까지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이석영 체어맨(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31명, 일본측에서는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라파주시멘트 사장) 등 30명이 참석해 「한일 기업의 연대 현황 및 향후 전망」, 「FTA시대의 과제로서의 원산지 규제와 기업」, 그리고 「한일경제와 문화·인적교류」라는 테마로 상호 정보교환 및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회의종료 후 양측 참가위원들은 산업시찰로 교토의 오므론(주) 게이한나(京阪奈)이노베이션센터와 (주)국제전기통신기술연구소(ART)를 방문하여 견학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2006년 10월 또는 11월에 개최기로 하였습니다.



<산업시찰하는 이석영 체어맨 및 양국 위원들>



<리셉션에서 인사하는
허남정 전무이사>

환황해지역 협력사업에 합의

~ 제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우리나라 환황해(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과 일본 큐슈(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현)지역 및 중국 환황해 연안(北京, 天津, 上海市, 遼寧, 河北, 山東, 江蘇省)지역과의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3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지난 11월 28일(월)~12월 1일(목) 대전광역시 유성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산업자원부 최평락 국제협력투자국장을 단장으로 125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마츠이 테츠오(松井 哲夫)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110여명이, 중국측에서는 呂克儉(Lu Kejian) 상무부아주사 사장, 馬林英(Ma Linying) 과학기술부 국제합작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121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일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환황해 비즈니스다이얼로그를 통해 시장접근 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3국 정부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기로 합의하였으며, ⑤ 환경·리사이클 비즈니스상담회를 열어 3국간 FTA체결에 대비, 환경·리사이클 분야의 자본 및 기술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차기 회의는 2006년 중국 산둥성日照市에서 개최됩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 전체회의를 통해 지자체 및 경제단체간 3개 분야(무역·투자, 인재교류, 기술교류)에 대한 실행사항에 합의하였고, ②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학)장포럼을 통해 「아시안커뮤니티를 위한 인재육성과 교류확대」 및 「기술교류와 국제공동연구 확대」 기반 마련, ③ 대덕 R&D특구 설명회 및 첨단기술 비즈니스상담회를 실시하여 대덕단지내 IT·BT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소개로 중국·



57개사 97건 700만달러 수출상담 실적 거두어

~ 제74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국제화상기기전 2005” 파견~

1985년부터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면서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방일수출촉진단 사업이 금번 74차 미션을 허남정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12개사 18명으로 구성하여 12. 7(수)~10(토)까지 일본 요코하마 퍼시픽전시장에 파견하였습니다.



금번 미션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화상기기 전문전시회(국제화상기기전 2005) 개최기간에 맞추어 JETRO측이 주최하는 독립부스에 참가하는 형태로, 사전 매칭을 통한 바이어와의 1:1 상담과 병행하여 화상기기 전시회에 참가한 전문바이어와의 상담 등을 통해 우리 화상기기 관련 산업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기업 57개사 97건의 상담을 통해 700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그 외에도 수출·업무제휴·기술제휴·합작사업 등 다양한 내용의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양사무국간 협의 마쳐

~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



양국 경제협회의 2005년도 정례업무협의가 12. 13(화)~16(금)까지 동경과 삿포로에서 한국측에서는 허남정 전무이사 등 5명이, 일본측에서는 히라키 겐지로 전무이사 등 8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양 협회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었고,

특히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제3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삿포로 시찰에 있어서는 회의장인 르네상스호텔 점검과 부인일정인 오타루 지역을 답사하였고, 일본측 홋카이도지역 회의준비 실행위원회측과도 회합을 통해 현지 상공인들의 참가와 홍보 등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日本은 지금...

異業種間の 經營統合의 어려움

<多角化는 限定的으로>

株主 價値 創造를 위해 經營의 多角化는 本業과의 上昇 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주변 사업 등에 한정하여 전개해야 한다. 급성장 기업이 재무적인 이유로 異業種과의 經營統合으로 치달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하기는 지극히 어렵고 적절한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없으면 주주에의 이익 환원도 選擇肢가 된다.

<기업종의 통합, 대부분이 실패>

최근, 일본의 M&A(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허용도가 올라가, 급성장 기업의 대부분이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樂天(인터넷 신흥 벤처기업)의 TBS(TV방송사)에 대한 경영통합 제안, 후지TV 지배를 노린 라이브도아(인터넷 신흥 벤처기업)에 의한 닛폰방송 매수의 시도, 소프트뱅크에 의한 일본텔레콤 매수 등은 모두 인터넷 관련 기업에 의한 다각화 전략의 사례이다.

이러한 다각화 전략의 사례에 의해 매수하는 측의 기업, 또한 매수당하는 기업측의 기업의 株主 價値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

경제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코스트를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 기업은 다각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樂天의 TBS에 대한 경영통합 제안은 인터넷 관련 기업과 방송 미디어라고 하는 異業種에서의 통합이고 <非關聯型 多角化>라고 불리워진다. 많은 경제학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의 비관련형 다각화는 거의가 실패로 끝났으며 이번 경영통합의 제안은 매수하는 측과 매수당하는 측의 쌍방의 주주에

있어 리스크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 기업과 미디어 기업의 합병이 성공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서는 세계 유수의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Time Warner)와 가정용 인터넷 접속 최대 기업이었던 아메리카 온라인(AOL)의 2001년의 합병을 열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경영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大失敗로 끝났다. 兩社의 사업의 시너지(상승) 효과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 일부는 실현 했지만 충분한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배울 수 있다.

이 다각화가 실패한 이유의 하나는 AOL의 경영자가(경영자에는 자주 보여 지는 것이지만) 양사의 비즈니스의 차이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AOL의 인터넷 사업과 타임워너의 미디어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 서로 다른 재능과 경영 능력, 경영수법,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디메리트(Demerit)를 극복하고 기업이 다각화에 의한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만약 매수측이 이하의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다각화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1) 매수하는 측이 오픈 시장에서 거래되어지고 있지 않은 자산을 매수에 의해 입수할 수 있게 된다. 2) 매수에 의해 입수한 자산이 매수하는 측의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매수하는 측이 自社 자산과 被買收企業의 자산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다. - 의 3가지 조건이다.

<콘텐츠 確保, 提携 等으로 可能>

미디어 사업에 있어서 콘텐츠(정보의 내용)는 파트너쉽과 업무 제휴, 공동 출자회사의 설립을 통해서 오픈 시장에서 입수 가능하고, 최근의 일본 국내에 있어 인터넷 관련 기업과 미디어 기업과의 각종 거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TBS는 11월부터 NTT커뮤니케이션 등 數社の 配信 사업자의 사이트를 통해서 백편 이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콘텐츠에 접근하고 싶은 기업은 다양한 콘텐츠를 유연하게 미디어 기업을 통째로 매수하는 것보다 低리스크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날 인터넷 관련 기업에 있어 미디어가 갖는 자산은 장애에 걸쳐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대기업 미디어 및 인터넷 관련 기업의 대부분은 인터넷 콘텐츠의 제작 경험이 없다. 소비자가 어떠한 인터넷 콘텐츠를 갖고 싶어 하는가? 대기업 미디어 기업이 제작에 일가견이 있는 TV의 와이드쇼 프로그램과 영화와 같은 콘텐츠가 요구 되어 지고 있는 것인지? 아직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신흥 인터넷 전문의 콘텐츠 기업 쪽이 기존의 미디어 기업과 인터넷 관련 기업보다도 인터넷용 콘텐츠의 제작에 적합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 것일까?

또한, 미디어 기업이 한 개 기업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가치 창조를 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인터넷 관련 기업이 미디어 기업이 갖는 자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미디어 이외의 자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화이바 통신망과 같은 브로드밴드 통신 환경에 대한 투자이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관련 기업은 그것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여, 미디어 분야로의 다각화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非關聯型 多角化에 있어서는 어느 기업을 매수하든 그 매수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별개의 매수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 一連의 買收

에 巨額의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물론,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영자도 인터넷 관련과 미디어 사업을 융합하여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어 하나의 회사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樂天은 TBS 측에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타임워너와 AOL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영의 자율성 유지에 의해 졸속으로 경영통합을 한 경우의 지대한 가치 파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부문이 독립해서 경영되어 진다고 하면 인터넷 관련 기업과의 경영통합에 의한 미디어 기업과 그 주주에 도대체 어떤 가치가 발생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多角化의 動機, 財務的 要因도>

만약 다각화가 가치 창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어떤 합리적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AOL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책임자인 스티브 케이스는 타임워너 매수 시점에서 AOL주식의 1%(10억 달러 상당)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자산은 AOL 고유의 리스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 리스크 輕減이 買收의 動機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경영진도 自社の 주가 수준이 이미 시장으로부터 충분히 평가되어 있는가? 아니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自社の 비즈니스를 어느 외부의 애널리스트보다도 熟知하고 있다.

전통적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 매수에 의한 AOL과 스티브 케이스氏는 사업 분야를 인터넷·비즈니스로부터 전통적인 동시에 안정적인 실체 자산을 갖는 방송 사업에 분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매수에 의해 AOL과 케스氏は 浮沈이 심한 인터넷 관련 업계 특유의 리스크를 경감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AOL의 다각화는 전략적인 것이 아닌 재무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의 일본에서도 이전의 AOL과 마찬가지로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는 경영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비추어 보면 왜 기업이 관련성이 낮은 異業種에의 다각화라고 하는 상당히 고 리스크를 감히 감수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아무리 리스크가 높은 다각화라고 해도 <다각화 리스크>의 쪽이 자사의 <주가 하락 리스크>보다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치 창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주주 가치의 최대화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기업은 自社の 中核 事業에의 투자가 가치를 창조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한은 中核

事業에 投資해야 한다. 그 때에 자사의 기존 사업과 주변 사업의 수익 기회에 관하여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거기에서 이익을 올릴 수 없다고 경영 판단을 한 경우에 처음으로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그것은 다각화 전략이 전술한 3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되어 진다. 또한, 적절한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없으면 기업은 투자에 충당할 예정이었던 過剩 資本을 自社株買入과 配當 増額, 또는 그 두 방법을 위해 株主에 還元해야 한다.

중핵 사업의 수익 기회의 감소라고 하는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다각화를 선택하는 것은, 리스크를 동반 하고, 대부분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코스트가 높게 된다. 자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산에 전략적으로 적합한 수익 기회의 추구하고 주주에의 이익 환원이라 말로 가치 창조를 향한 보다 좋은 어프로치라고 말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5. 11>

● 샷포로 라면 전설 - 라면의 뿌리는 샷포로?

◇ 중국에는 「라멘(라면)」이라는 이름의 면요리가 없다. 그러면 이 불가사의한 전국민적 인기의 중화면에 「라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누구일까?



명치시대 말기 요코하마 중화가 그리고 동경 서민들의 거리에 있던 차르메라 포장마차에는 이미 「시니소바」라는 이름의 라면이 등장하였으나, “라멘(라면)”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라면은 「柳麵」, 「老麵」, 「拉麵」이라는 한자로 표시하나 이 중 면발을 잘 늘린다는 뜻의 「拉麵」이라는 말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훗카이도 대학 앞에 있는 다케야(竹屋) 식당으로 때는 1922년이다. 당시 고용한 북경요리 요리사 왕웬카이가 수제면을 점주에게 선보였는데 이 때의 동작을 한자로 표현하였다는 설과 일본어를 못 한 그가 「예」, 「졸습니다」라는 의미로 「라」라고 발음하였기에 「라멘」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이것이 히트하여 전전에는 시내 다방의 인기 메뉴가 되었을 정도. 단, 현재의 샷포로 라면보다는 “담백한 중화면”이었다고 한다.

會員 動靜 & 短信

■ 조석래
(趙錫來)
회장(효성
회장)을 비
롯해 김윤
(金鈞) 부



회장(삼양사 회장),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삼환기업 회장) 등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업인 최대 포럼인 'APEC 최고경영자 회의 CEO Summit'에 참석했다. 11월 17~18일 이틀 동안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CEO Summit'은 '기업가 정신과 번영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로 9개 정상 세션, 8개 토론 및 폐막 세션 등 17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 김승연(金昇淵) 부회장(한화 회장)은 "기업은 사회를 밝히는 불꽃이 돼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신입사원 100명과 함께 '사랑의 100리 행진'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이 행사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둔 그룹 내 직원을 돕기 위한 것이다.



■ 손경식(孫京植) 부회장(CJ 회장)은 11월 29일 대한상의 임시의원 총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새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손 회장은 일단 '두산 사태'로 중도 사퇴한 박용성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회장직을 맡게 되지만 별 문제가 없는 한 다시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에 선출될 전망이다. 취임사에서 그는 "어느 민간경제단체보다 역사



와 전통이 깊고, 4만5,000여 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12월 5일이희범산업자원부장관, 이



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과 회사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곳에는 손경식(孫京植) 부회장(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사 회장),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신한금융지주는 12월 13일 롯데호텔에서 임시의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의 '신한장학재단' 설립을 의결했다. 재단 이사장은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겸임하며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동남아 2개국 국빈 방문과 'ASEAN+3' 정상회의에 맞춰 경제계가 동남아 경제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동남아와 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켰다. 41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에는 우리협회의 손경식(孫京植) 부회장(대한상의 회장)이 단장으로 참가했고,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이 함께했다.

■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창설된 ‘한·중·일 문화교류포럼’이 12월 6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포럼에는 한·중우호협회 회장인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용운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최성훈 전 외교통상부 장관, 중국 리더요우 대외문화교류협력회 상무 부회장, 천용창 중·일우호협회 부회장, 일본 히라야마 이쿠오 일·한문화교류회의 좌장 겸 일·중우호협회 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내년 전체회의는 베이징, 2007년에는 도쿄에서 개최된다.

■ **성재갑(成在甲) 부회장**(LG 석유화학 고문, 한국화학산업 연합회장)은 11월 28일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동 대강의실에서 ‘화학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제1회 ‘장근수



특별강좌’를 갖았다. LG화학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40년 넘게 한국화학산업과 함께 한 ‘산 증인’인 성 부회장은 이날, ‘화학산업의 세계적 동향을 진단하고, 한국화학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세아제강 회장)은 이운형 부회장등 사장단 일행과 함께 12월 13일 유니온스틸 차이나를 방문했다. 유니온스틸은 세아제강 사장단 일행이 지난 13일 유니온스틸 차이나 인근의 ‘한국 번디 소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회사를 방문, 최태성 총괄대표와 중국 철강산업 동향 및 양사간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제주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다.”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삼성물산 회장)은 ‘21세기는 행정시대가 아니라 경영시대’라는 주제로 12월 8일 오후 탐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을 했다. 현 부회장은 “경영시대와 행정시대의 차이는 ‘부가가치 창출’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21세기 경영의 키포인트”라고 말했다.



■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 제주도관광협회장)는 지난 11월 24일 서귀포칼호텔에서 (사)한국기독실업인회가 주최한 서귀포CBMC(Chrsian Business Men's Committee) 초청만찬회에 참석,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 2005년 한해 많은 협력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사무국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민간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사무국장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차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him@kjc.or.kr